

□ 소비동향

○러시아 소비자의 연간 일인당 과일 류 소비량은 약 34kg으로 이는 기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연간 소비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비실적임

-총 소비량 중 사과가 10.5kg으로(30%) 가장 많았으며 바나나는 4.5kg(13%), 오렌지 및 감귤류가 3kg(8%)를 차지함

- 러시아인 들은 과일을 주로 간식이나 기차 이동 시 이용

○러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류는 사과, 바나나, 오렌지, 포도, 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파인애플, 망고, 아보카도 등 열대 과일 류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함

- 다만 열대 과일 류의 선호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임

○ 감귤은 겨울에 가장 많이 수입, 판매되고 여름에 가까울수록 유통물량이 적은 편임

- 감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준비하는 과일로 12월에 소비량 급상승

- 여름에는 수박, 메론, 살구, 자두, 포도 등 다양한 계절과일이 판매되어 감귤에 대한수요는 매우 낮음

○감귤은 신선과일로 소비하기도 하지만 주스, 제빵, 디저트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

○모로코와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산 감귤이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

제품이며, 스페인산의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고급제품이라는 인식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로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대도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에 의한 구매가 이루어짐

- 모스크바의 일부 고급 슈퍼마켓에서는 고가의 태국산, 일본산 감귤 판매
- 노보로시스크가 위치한 남부지역에는 이스라엘, 터키, 파키스탄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은 중국산, 극동지역에서 한국산 감귤도 유통되고 있음

○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, 45%의 응답자가 감귤류 소비가 가장 많은 가을/겨울에 1회 이상 감귤을 구입하며, 이 중 40%의 1회 구입량은 1kg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

- 러시아에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품종의 감귤이 들어와 있지만,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원산지는 모로코이며, 품종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

- 주요 감귤류 구매기준은 당도와 과즙함량으로 응답